

내년부터 소멸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이렇게 쓰세요 럭셔리 여행상품 구매·호텔 숙박 등 사용처 무궁무진



내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주변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쓸 곳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외에 마일리지로 럭셔리한 여행상품이나 국내외에 있는 호텔 예약도 가능하다. 또 렌터카를 빌릴 수 있고 소액 마일리지로 여러 가지 로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사용처가 기다리고 있다.

LA 고급 호텔 투숙도 마일리지로

항공 마일리지라고 해서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만 쓰라는 법은 없다. 마일리지로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호텔을 예약하거나 렌터카도 빌릴 수 있다. 소액 마일리지로 다양한 로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항공권과 숙박, 현지 여행비까지 모두 포함된 마일리지 투어 상품에 마일리지를 쓰는 것은 어떨까?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의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에서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진관광과 연계해 칼팍(KALPAK, www.kalpak.co.kr)이라는 고품격 여행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마일리지로 이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가장 후회 없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광고 문구를 선보이는 칼팍 마일리지 투어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럭셔리하게 관광상품에 마일리지를 쓰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품이다. 다른 여행상품에서는 좀처럼 접하지 못했던 동남아, 일본, 대양주, 유럽 등의 차별화된 목적지는 물론 평소 만나기 어려운 명사와의 여행이나 색다른 테마가 있는 여러 맞춤형 여행상품들을 선보인다. 고품격 호텔과 톱 클래스 레스토랑은 기본이다. 예약 상담 단계부터 고객이 선호하는 비행기 좌석을 사전에 파악하여 좌석 배정을 진행한다. 일반석 탑승객은 프레스티지 수속 카운터, 프레스티지석 탑승객은 차상위 수속 카운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인천공항 라운지는 무료로 제공된다.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놓고 여행 계획을 따로 세워 뒀다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호텔만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항공은 최소 1만5천 마일부터 최대 3만2천 마일을 이용해 국내·외 유수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제주KAL호텔, 서귀포KAL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은 물론 하와이의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등 세계적 호텔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은 로스앤젤레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총 73층, 335m 높이에 달하는 월서 그랜드 센터에 있다. 로비는 70층에 위치해 투숙객들은 시내 금융 중심가의 스카이라인과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하면서 체크인을

하게 되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연회장에는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유리문을 장착해 다른 호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을 더한다. 객실에는 개폐식 창문을 장착해 투숙객들이 로스앤젤레스시의 환상적인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 제주도를 찾을 일이 있다면 마일리지를 공제해 렌터카를 빌려보는 것도 좋다. 대한항공은 한진렌터카와 함께 '마일로 렌터카'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이용해 라운지 이용, 초과 수하물이나 특수 수하물 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에는 없던 사람이/환경이 키 링(Key Ring),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등으로도 소액 마일리지 소진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마일리지 사용은 뭐니 뭐니 해도 항공권

마일리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바로 항공권 구매다.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공제하는 보너스 항공권은 장거리 노선,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의 프리미엄 좌석에 사용할 때 그 빛을 발한다. 대한항공 인천~파리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일반석 7만(평수기)~10만5천(성수기) 마일, 비즈니스석 12만5천(평수기)~18만5천(성수기) 마일을 공제하면 된다. 그러나 에어프랑스의 경우 일반석 8만~11만2천, 비즈니스석 18만~27만 마일을 각각 공제한다. 인천~애틀랜타 노선 보너스 항공권 구매의 경우 대한항공은 파리 노선과 마찬가지로 일반석 7만~10만5천, 비즈니스석 12만5천~18만5천 마일을 공제하지만, 델타항공은 일반석 11만3천~14만3천, 비즈니스석 25만9천~46만 마일까지 공제한다. 좌석 승급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1단계 승급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평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평수기에 사용하는 것이 알뜰하게 쓸 수 있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수요가 높아 원하는 날짜와 항공편의 보너스 좌석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 항공사들은 '영업비밀 유지' 차원에서 보너스 항공권 가능 구매 좌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계획성 있게 미리 준비하면 마일리지 사용이 한결 편리해진다. 마일리지 좌석 경쟁이 높은 만큼 일찍 예매를 시도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할 기회도 커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시즌별, 요일별, 노선별 탑승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 가능한 한 더 많은 보너스 항공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너스 좌석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의 '보너스 좌석 상황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361일 이내의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일리지 좀 부족할 땐 가족합산제 활용
그런데 마일리지 좀 부족해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호텔 등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상품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항공은 가족끼리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

도를 허용한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는 없다.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삼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은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로 이용하는 제도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은 회원 본인을 포함해 5인까지 가능하다. 합산 시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는 모두 소진된다.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다. 단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가족 등록 신청서와 가족 증빙 서류를 준비해 홈페이지, 지점,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마일리지나 포인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부분 업종에서는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연간 단위로 소멸해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외국 항공사들은 대체로 유효기간이 짧고 조건도 불리하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퀀타스항공의 경우 12~18개월간 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마일리지 가 모두 소멸한다.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도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카드사나 백화점 등 유사 제도를 운용하는 업종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때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유효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길다. 게다가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유효기간이 있는 보유 마일리지를 다 썼을 때만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 가 공제된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실제로는 몇 개월 더 유효기간(+α)이 주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2008년 7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 후인 2018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09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마지막 날까지,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